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1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4.(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1. 4.(화)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담당과장	채규남 과장(044-203-4610)	담 당 자	우지식 사무관(044-203-4614)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43% 증가

① 최근 3년래 최고 실적 달성 ② 누적기준 200억불 돌파
③ 그린필드형 투자 98% ④ EU·중화권 의약 투자 급증 ⑤ 특정지역 집중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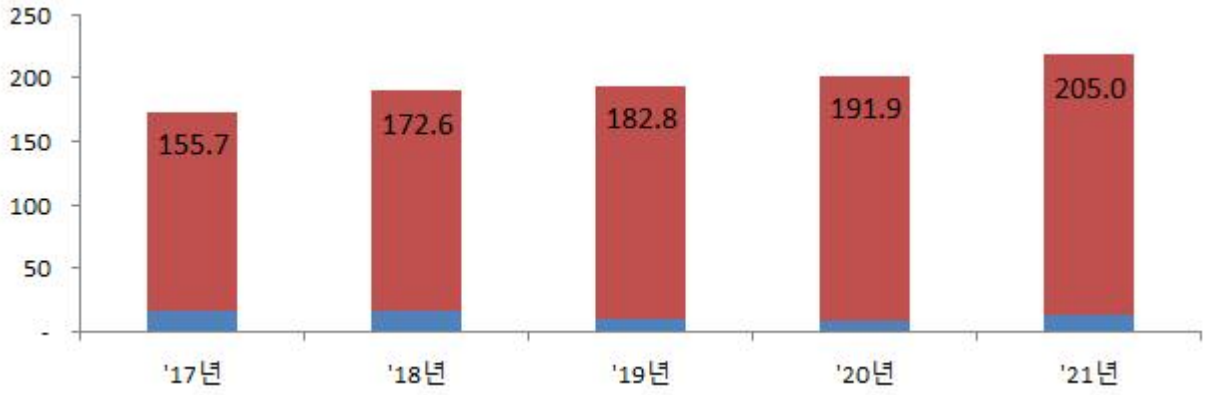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1억불,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4억불**을 기록하여 **최근 3년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누적기준으로 205억불을 달성하였다고 밝힘

○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여건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노력한 결과,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비스분야**의 해외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 신고기준 FDI 실적 추이 (단위 : 억불) >



< 경제자유구역 신고기준 FDI 누적실적 추이 (단위 : 억불) >



□ 2021년 외투유치 실적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별로는 그린필드형 투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 국가별로는 EU·중화권·필리핀發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업장 신·증축이 수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 유입은 12.8억불로 전체 실적의 98%**를 기록하였는데, 국내 전체 외투유치 실적에서 그린필드형이 6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의약·금속 분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2억불을 기록하였고, **서비스업은 리조트개발·물류·R&D 분야** 등에서 64.7% 증가한 7.8억불을 기록함. 이 중 **신산업* 비중은 제조업의 85%, 서비스업의 54%를 차지**하여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임

* 신산업 정의 :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서 분류한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서, INSC 4계층 기준 223개 세부업종 중 제조업 21개, 서비스업 23개 등 44개 업종

○ 국가별 비중은 EU 40.8%, 중화권 31.6% 북미 10.6%, 필리핀 10.0%, 일본 6.0% 순이며, EU는 의약·리조트개발·물류, 중화권은 의약·물류·금속, 북미는 의약·물류·2차전지, 필리핀은 리조트개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함. 특히, 2021년에는 **EU·중화권·북미**

공히 의약·바이오 분야 투자가 인천으로 중점 유입되어 글로벌 바이오 생산거점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자유구역별로는 인천 7.1억불, 부산진해 2.9억불, 동해안권 1.0억불, 경기 0.9억불, 광양만권 0.8억불, 충북 0.2억불, 대구경북 0.1억불 순이며, 2020년 신규로 지정된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7개 모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투실적이 증가하였는데, 그간 **인천과 부산진해 지역으로 외투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어('20년 90.1%→'21년 76.9%), 2021년은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유치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룩한 해로 평가됨

□ 산업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 확산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우수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고 그간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켰다"면서,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힘

【붙 임】 1.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인포그래픽
2.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상세분석 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우지식 사무관(☎ 044-203-46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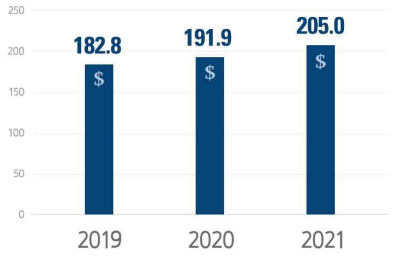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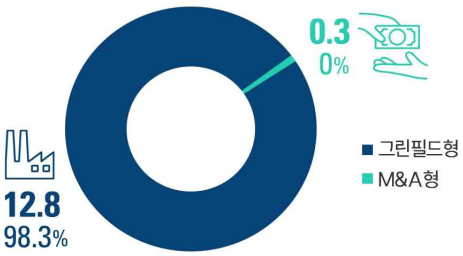
① 최근 3년 간 경제자유구역 FDI(신고) 추이 (단위 : 억 불)



② 경제자유구역 FDI(신고) 누적실적 추이 (단위 : 억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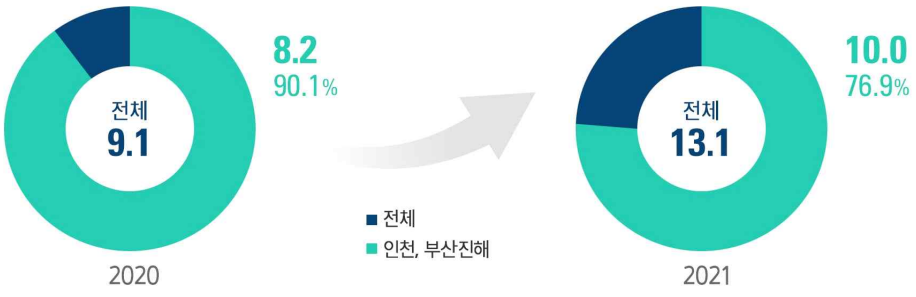
③ 경제자유구역 FDI(신고) 대상별 비중 (단위 : 억 불)



④ 경제자유구역 FDI 중 의약·바이오분야 비중 (단위 : 억 불)



⑤ 경제자유구역 FDI 중 인천·부산진해 비중 (단위 : 억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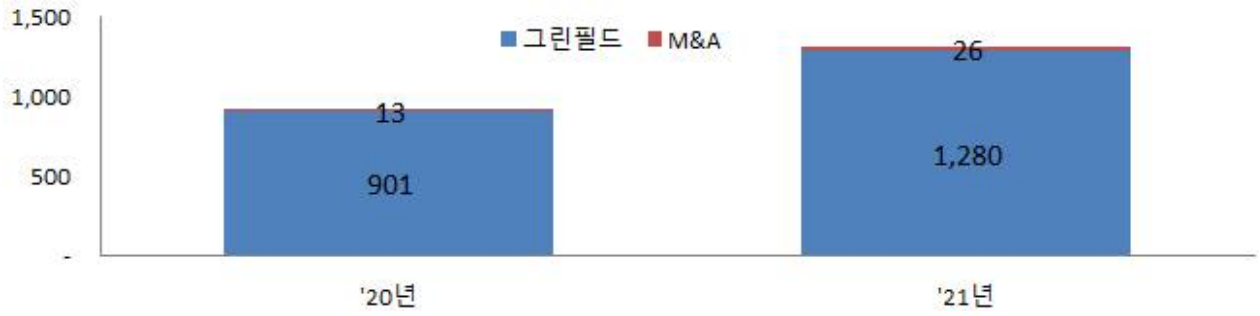
Copyright©2021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붙임2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상세분석 내용**

대상별(신고)

□ **(총괄)** M&A형 투자도 증가하였으나,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세를 주도함

< 대상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 **(그린필드형)** 전체실적의 98%인 12.8억불로, 제조업(+19.4%)과 서비스업(+63.6%) 투자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1% 증가함

* 업종별(비중) : 제조업 524백만불(40.9%), 서비스업 757백만불(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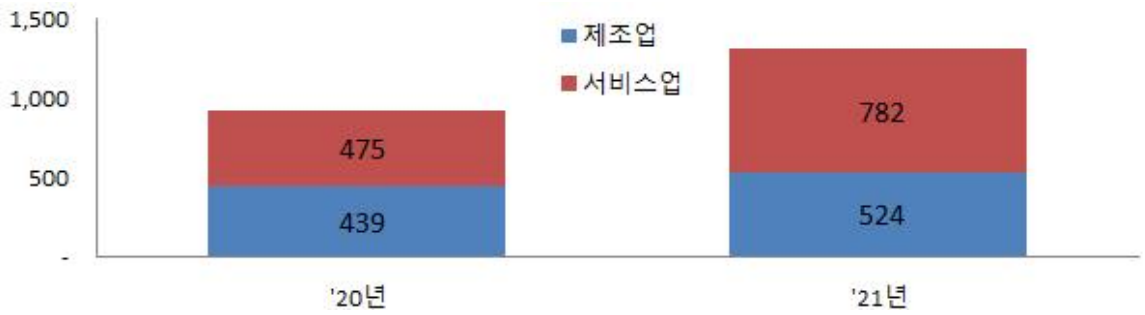
○ 그린필드형 투자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3%(+92.6%, 8.5억불)이고, 핵심전략산업은 50.2% 차지함(+827% 6.4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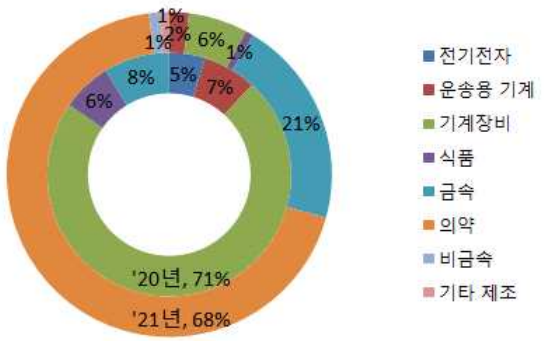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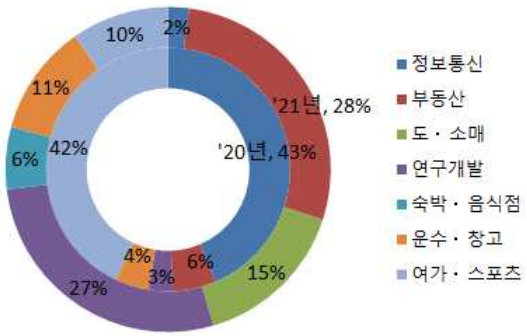
□ **(M&A형)** 전체 실적의 2%인 0.26억불로, 모두 서비스업 투자로서 전년대비 96.2% 증가함

업종별(신고)

□ **(총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함

< 업종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 제조업 신고액 구성 >	< 서비스업 신고액 구성 >
	

□ **(제조업)** 전체실적의 40.1%인 5.2억불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함

○ 기계장비 업종이 대폭 감소(△90.1%)하였지만, 금속(+189%), 의약(+22,044%) 업종이 증가세를 견인함

○ 구역별로 인천(+22.5%, 의약품), 광양만권(+4.0%, 2차전지·금속) 등에서 증가함

○ 신산업(+1,485%, 4.5억불), 중점유치업종(+1,001%, 3.6억불), 핵심전략산업(+509%, 3.6억불) 실적이 대폭 증가함

* 제조업 내 비중 : 신산업 85.3%, 중점유치업종 69.3%, 핵심전략산업 69.0%

□ **(서비스업)** 전체실적의 59.9%인 7.8억불로, 전년 대비 64.7% 증가함

○ 부동산(+704%), 도·소매(+1,478%), 연구개발(+1,350%), 운수·창고(+312%) 업종 등의 증가에 힘입어 서비스업 실적이 증가함

○ 구역별로 인천(+37.3%, 리조트개발·물류), 동해안권(1억불, 리조트개발), 부산진해(+12.4%, 바이오R&D, 데이터센터), 경기(+731%, 물류) 등에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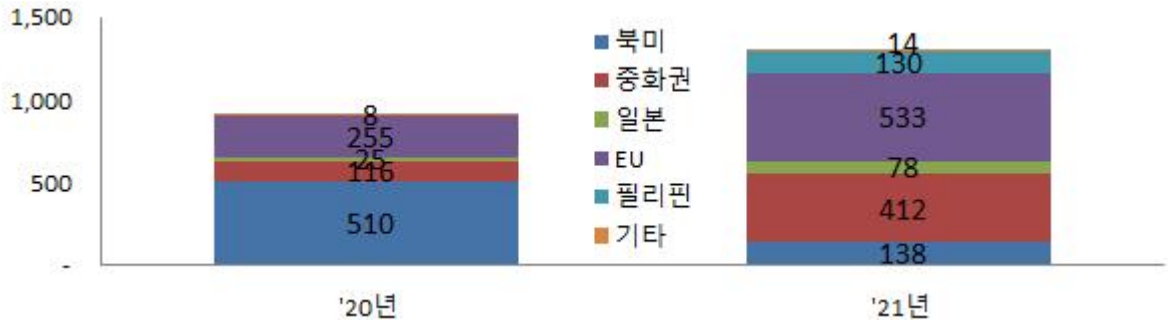
○ 신산업(+1.7%, 4.2억불)은 소폭 증가, 핵심전략산업(+2,488%, 2.8억불)은 대폭 증가함

* 서비스업 내 비중 : 신산업 53.8%, 핵심전략산업 36.1%, 중점유치업종 19.2%

국가별(신고)

□ **(총괄)** 북미는 감소하였으나 EU, 중화권, 필리핀 등이 증가세를 견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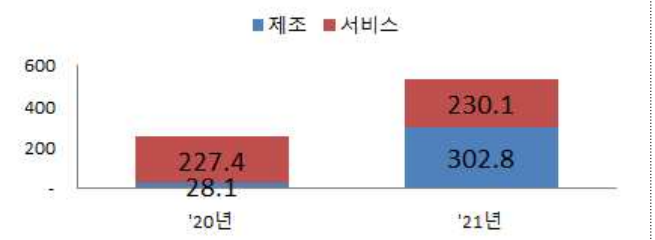
< 국가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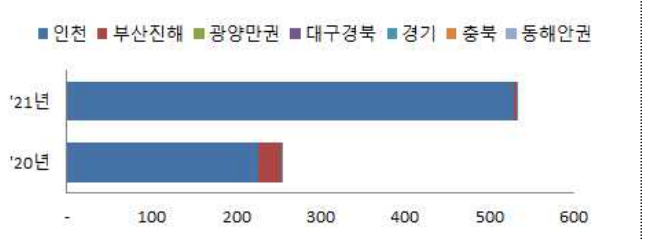
○ 경자구역별 주요 투자유입 국가를 살펴보면, 인천은 EU, 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는 중화권, 동해안권은 필리핀 등으로 나타남.

□ **(EU)** 전체실적의 40.8%인 5.3억불로, 전년대비 109% 증가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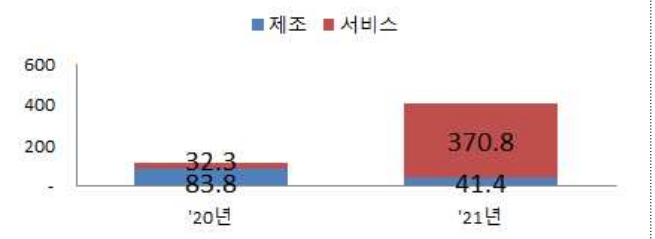


○ 제조업(+978%)은 대폭 증가하고 서비스업(+1.2%)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투자유입 중 신산업의 비중은 87.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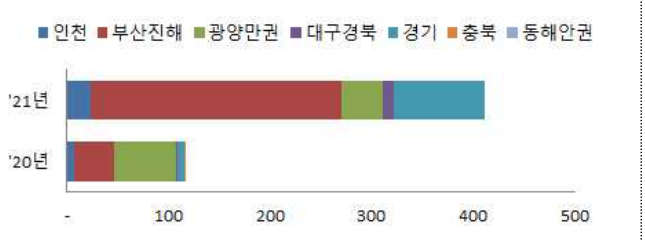
* 제조업 303백만불(56.8%), 서비스업 230백만불(43.2%)

□ **(중화권)** 전체실적의 31.6%인 4.1억불로, 전년대비 255% 증가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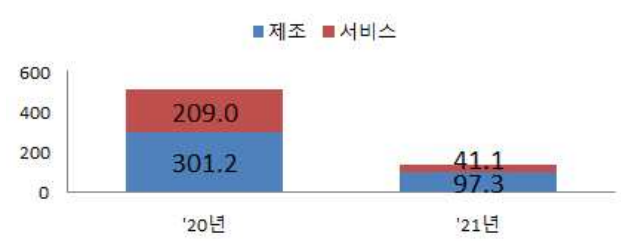


○ 제조업(△50.6%)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1.048%)이 대폭 증가하였고, 투자유입 중 신산업 비중은 6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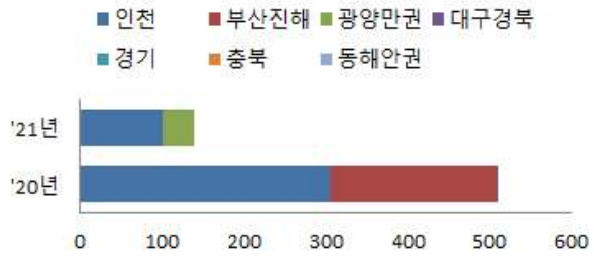
* 제조업 41백만불(10.0%), 서비스업 371백만불(90.0%)

□ **(북미)** 전체실적의 10.6%인 1.4억불로, 전년대비 72.9% 감소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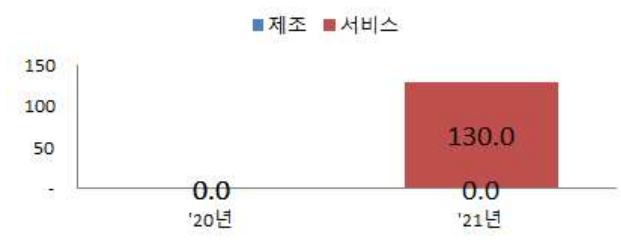


○ 제조업(△67.7%)과 서비스업(△80.3%)이 모두 감소하였고, 투자유입 중 신산업의 비중은 95.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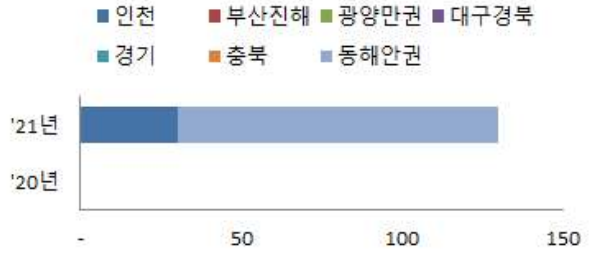
* 제조업 97백만불(70.3%), 서비스업 41백만불(29.7%)

□ **(필리핀)** 전체실적의 10.0%인 1.3억불로, 전부가 서비스업에 투자됨

< 업종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 경자구역별 신고액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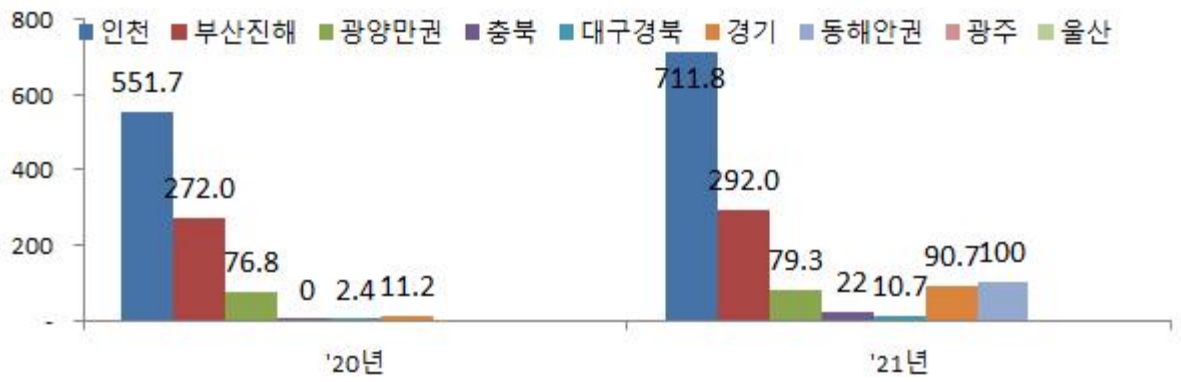


구역별

□ 광주, 울산을 제외한 전 경자구역에서 실적이 증가하였고, 인천, 부산진해로 해외투자 유입이 쏠리는 현상이 크게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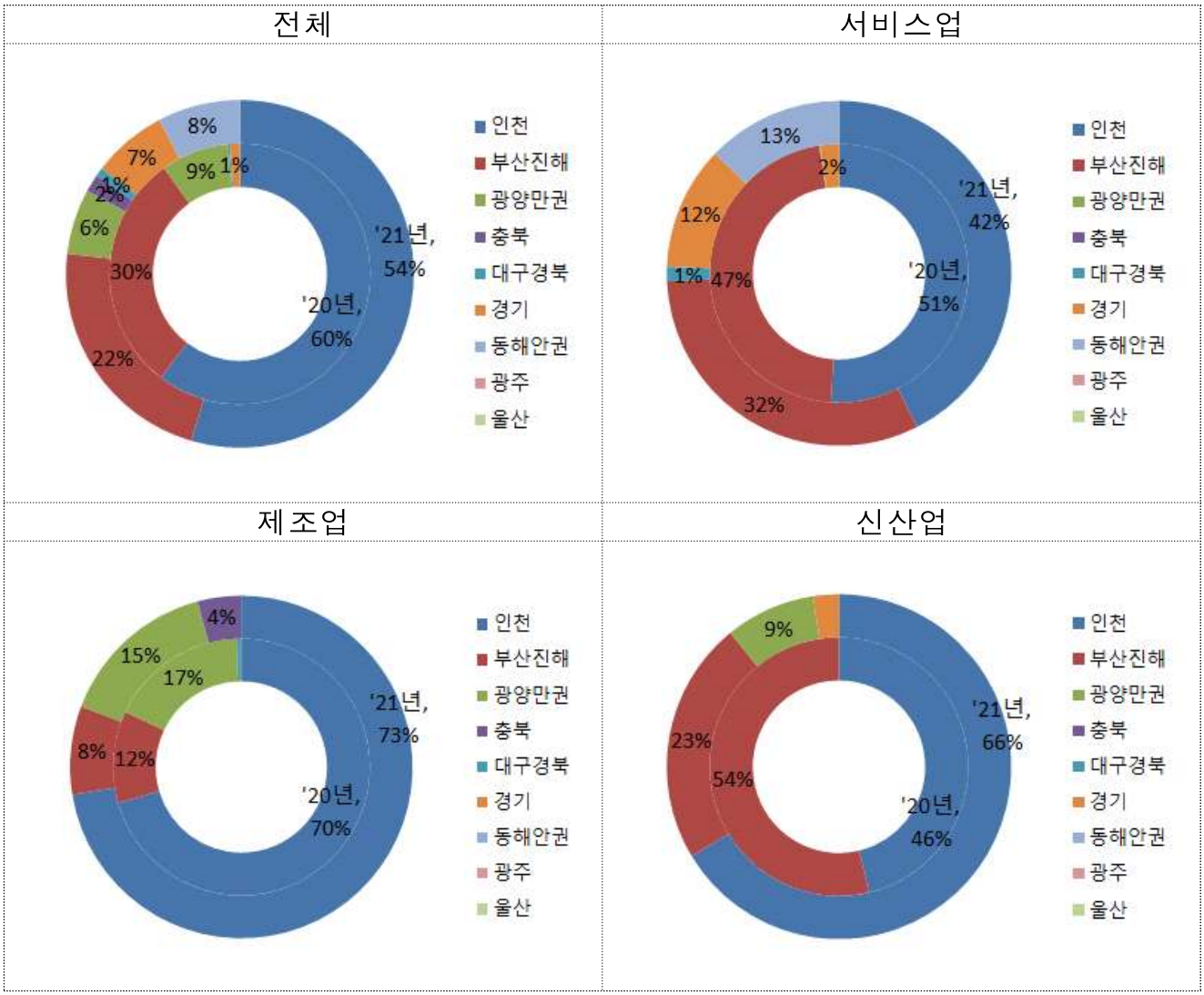
* 인천·부산진해 실적 합계 비중 : ('20) 90.5% → ('21) 76.9%

< 경자구역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 서비스업·제조업 분야에서도 해외투자 유입의 집중현상이 완화되는 것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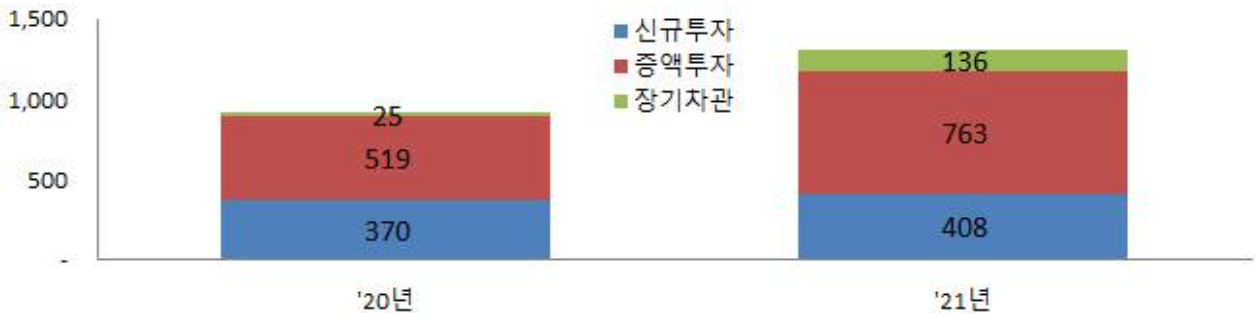
< 전체·서비스업·제조업·신산업 신고액 구성 >



자금별(신고)

□ **(총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이 모두 증가함

< 자금별 연간 신고액(단위 : 백만불) >



□ **(신규투자)** 전체 실적의 31.2%인 4.1억불로, 제조업 투자 감소(△50.7%)에 비해 서비스업 투자 증가(+727%)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함

* 업종별(비중) : 제조업 168백만불(41.2%), 서비스업 240백만불(58.8%)

○ 신규투자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2,347%, 2.4억불)이고, 핵심전략산업은 15.3% 차지함(+607% 62.5백만불)

* 중점유치업종의 경우 신규투자의 14.6%를 차지(+412%, 59백만불)